



11. 구원과 영원한 생명

성경 본문 :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5: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조예)**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한다.

특히 공관복음서는 구원에 대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요한복음과 서신서는 영원한 생명, 또는 생명을 강조한다.

구원의 과거, 현재 및 미래

또한, 성경은 구원에 대해 과거, 현재 및 미래의 관점에서 기록한다.

신자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미래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이것을 과거적 구원(칭의. justification) 현재적 구원(성화. sanctification) 및 미래적 구원(영화. glorification)이라 한다. 영화(榮華)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신자가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제 9 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 ‘이미와 아직 아니다’ (already but not yet)의 관점에서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고 배웠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생에도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있다.

요 10: 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현재형)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현재) 믿는 자는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현재완료형)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미래형)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누리는 삶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 또는 생명은 신자가 과거에 받아서 현재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누리는 것으로 기록한다.

최갑중 교수는 과거적, 현재적 및 미래적 구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구원(칭의도 마찬가지로이지만)과 관련하여 때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지금 구원을 누리거나 이루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성경(바울서신)에서 구원이-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천국)나 영생의 경우처럼-때로는 이미 주어진 과거형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성취되어가고 있는 현재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이 “종말론적이다”라고 표현한다.

.....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미 현재에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 미래형으로 설명되는 이유는 장차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죄와 죽음과 모든 사탄의 세력을 징벌하신 다음에야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완성된 구원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거나 우리의 손 안에 넣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오직 약속과 소망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갑중, 『칭의란 무엇인가』, pp. 11, 12, 13).

비오스의 생명과 조에의 생명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생명, 두 가지 삶이 있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생명을 말할 때, '생명' 또는 life 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생명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는 비오스이고 다른 하나는 조에이다.

비오스의 생명은 동물적인 생명이다. 태어나서 먹고 자고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동물적인 생명을 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오스’의 생명이라고 표현한다. 생물학을 말하는 biology 는 이 말에서 생겼다.

성경이 말하는 비오스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비오스)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고전 6: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비오스의 형용사형 사용) 일이라.

그러나 조에의 생명은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비오스의 삶과 조에의 삶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비오스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제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장이 나는 삶이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비오스의 삶이 아니라 조에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들의 삶은 영생의 삶, 조에의 삶이다. 특히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서에서 말하는 '생명'은 대부분이 조에의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인 조에의 생명이 있다.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조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조에)이 없느니라.

조에의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비오스의 생명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생명이지만 조에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는 생명, 성령이 거듭나게 한 생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생명,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삶을 살았다. 건강한 몸,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가졌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대부분을 가졌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후, 이런 삶은 헛되고 헛된 비오스의 삶을 절감했다.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나은 삶이었지만 “쓰레기 같은 삶”이었음을 고백한다.

빌 3:7-9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처럼, 비오스의 삶은 죄악의 삶이요 잡신의 종노릇을 하는 삶이다.

엡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2).

히 25-26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당시 최대 문명국인 애굽의 황태자로서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최악된 삶이다.

그러나 조예의 삶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삶이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골 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신적 생명을 누리는가?

둘째 비오스의 삶은 허무한 삶이다.

전 1:2-3; 12:13

2.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린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한 말이다. 필자도 믿음이 없을 때는, “아니 자기는 이 세상 부귀영화를 실컷 누렸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도 실컷 누리고 난 후에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비오스의 삶은 정말 허무하고 쓰레기 같은 삶이란 사실을 절감한다.

그러나 조에의 삶은 인생의 참 의미와 보람을 누리는 삶이다.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기쁨)이라.

전 12:13-14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14.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셋째, 비오스의 삶은 참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에 눌린 삶을 살고 있다.

롬 2: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나 조에의 삶은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다.

롬 10: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기쁨)이라.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누리는가?

넷째, 비오스의 삶은 내 힘으로 이루어 가는 삶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제약과 연약함에 부딪쳐 그릇된 인생을 살기 쉽다.

렘 17:5-7

5. 여호와(하나님의 이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재앙)를 받을 것이라.

6.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은 죄로 인해 제한된 인간의 지혜나 노력을 말한다. 육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 해도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조예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므로 형통하고 복 받는 삶이다.

시 1:1-3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벧전 4:10-11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비오스의 삶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삶이다.

비오스의 삶은 잠시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삶이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요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조에의 삶은 미래는 물론 현실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조에)이니라.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조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죽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가?

생명과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조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조에)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조에의 생명을 얻음은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조에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요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조에)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가?

풍성한 생명이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에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당신은 과연 지금 풍성한 조에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당신은 예수를 믿지만 다음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있는가?

-습관적인 죄악이나 은밀한 죄를 아직도 짓는 것은 아닌가?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고, 의심,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좌절과 낙심,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과 기도애 힘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답답해 하는 것은 아닌가?

-기타 다른 문제들은?

이런 사람은 비록 예수를 믿어서 조에의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도 내주하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 풍성한 조에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롬 7:22-24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 5:17-18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에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매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성화훈련을 해나가야 한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엡 4:22-24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운동 선수가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강화하기 위해 매일 훈련하듯, 신자도 매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경건의 훈련(연습)을 할 때 조에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딤후 4:7-8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훈련, 연습)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고전 9:25-27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나 초자연적 능력을 많이 갖기 위한 훈련은 잘 하지만 자기의 단점-은밀한 죄들-을 제거하는 훈련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하는가?

이 교재는 여러분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됩니다.

아래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

국민은행 529401-01-218720 임마누엘선교회

우리은행 1005-301-174848 임마누엘선교회

농협 351-0796-2966-13 임마누엘선교회

(*정기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 :

STANDARD CHARTED BANK 47 Jong-Ro, Jongno-gu, Seoul, Korea

SWIFT Code : SCBLKRSE. Account No. : 498-20-036592

Name : Immanuel Mission. 010-7522-0050